

Completion Pneumonectomy 의 臨床的 考察.

國立醫院 胸部外科

許 滂 . 李正浩 . 유희성

目的 : Completion Pneumonectomy(CP)란 과거 폐수술에서 남아 있는 폐조직을 완전 제거하는 전폐적제술을 말한다. 폐의 외과적 양성및 악성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급적 폐기능을 많이 보존하고, 외과적 침습도를 고려하여, 병소부위만 절제 또는 기관성형술등을 시행하는 추세이나, 원격추적관찰상, 국소병변의 재발, 수술후 합병증 발생등의 원인으로 폐를 완전 적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자는 1958년부터 1993년8 월까지 국립의료원 흉부외과에서 치험한 환자에 대하여, 임상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對象 및 結果 : 1958년부터 1993년8 월까지, 국립의료원 흉부외과에서 시행한 CP수술례는 총11례이고, 남녀비는 10:1로 남자에 많았고, CP시행시 평균연령은 43세 (최연소자 28세, 최고령자 68 세) 이고, CP 적응증은, 양성질환 9례, 악성질환 2 례이었다. 최초수술부터 CP까지의 기간은 평균 62.3 개월 (최단기 17 일, 최장기 288개월) 이었다.

수술간 평균출혈량은 3582ml. (최소출혈량 1500ml., 최대출혈량 6500ml.)로 재개흉술시 심한 유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술간에는 심낭내에서의 폐혈관 처리, 기관지단단부에 대한 주위조직을 이용한 보강처리 및 Fibrin glue사용을 하였다.

수술합병증은 4 례에서 농흉이 발생되었고, 이 중 2례에서는 기관지늑막누공이 동반되어 있었다. 또 1 례에서심한 호흡부전증이 병발되었다.

수술사망은 1 례로, 사망원인은 수술지후의 호흡부전과 견측에 발생된 긴장성 기흉에 기인 한것으로 생각된다.

CP후 합병증및 사망율은 각각 5례 (45.4%) 및 1 례 (9%) 이었다.

結論 :

폐의 일부를 보존한 폐수술후, 추적관찰을 하면 국소병변의 악화 혹은 재발, 수술후 합병증 발생, 또는 새로운 병변의 진행등으로, CP의 수술적응이 검토되는바, 최초수술에 비하여 위험을, 합병증 및 사망율이 비교적 높은 편 이라 하겠다.

앞으로도, CP 적응이 증가될것이 예견되는바, 수술간에는 심낭내 폐혈관결찰및 처리, 기관지단단부 보강처리, Fibrin glue 사용 및 세심한 지혈조작등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불리한 점을 개선 시키므로써, 합병증및 사망율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